광명시 '평화도시 조성' 추진...6개 테마공간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9:07 수정 : 2021.08.29 19:07

박승원 광명시장 26일 '광명시 평화도시 기본구상 및 상징공원 조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주재.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 개최, KTX광명역~도라산역 DMZ평화기행 등으로 시민과 함께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해온 광명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광명시 평화도시 기본 구상 및 상징공원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평화도시 조성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원, 광명도시공사, 전문가, 용역사,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5월12일 광명평화동굴 도약 선포식을 열고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의 1%를 '광명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적립하고 광명동굴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역사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광명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광명시

만이 가지고 있는 KTX 광명역과 광명동굴 장점을 살려 △생활 속 인간존중 평화 지향 △시민 주도 평화도시 △평화문화, 평화교육 정책 추진 △통일한국 준비 등 평화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평화 의미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통일, 자유, 행복, 화합, 안전, 평온 등 6개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광명시 26일 '광명시 평화도시 기본구상 및 상징공원 조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착수보고회에서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평화도시 행사나 공간 조성을 떠나 광명동굴, KTX 광명역,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광명 특색을 살린 평화도시 이미지 마련과 공간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간보고회, 11월 최종보고회를 열어 전문가-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 광명 특성이 반영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국제평화도시 가입,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 평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가 서로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